

■ 괴운(槐雲) 칼럼



묘서동처(猫鼠同處)와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오늘은 위정자들에게 규범이 되는 묘서동처(猫鼠同處)와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묘서동처(猫鼠同處)는 중국 당나라 역사책 구당서(舊唐書)에 나오는 말 이다. 이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이다.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양이와 쥐는 천적(天敵)관계다. 한 자리에 그냥 두면 쥐는 고양이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그래서 굴을 파고 들어와 곡식을 훔쳐먹는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를 키우곤 했다.

과거에 쥐는 숨어 었드렸다가 도둑질하는 놈으로, 고양이는 그런 쥐를 붙잡는 엄정한 관리로 비유한 이유였다. 그런데 원수 사이인 둘이 서로 해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볼 보듯 뻔하다. 도둑을 지켜야 할 관리가 그 직분을 포기하고 도둑과 한통속이 된 거다. 위아래가 부정하게 결탁해 나쁜 짓을 일삼고 있다는 얘기다. 통탄할 노릇이다.

구당서(舊唐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낙주(洛州)의 조귀(趙貴)라는 사람 집에 고양이와 쥐가 같은 것을 빨며 사이좋게 지냈다고 한다. 이를 본 그의 상관인 쥐와 고양이를 임금에게 바쳤다. 그러자 대다수 중앙의 관리들이 상스러운 일이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오직 최우보(崔佑甫)란 사람만이 “이 사람들이 실성(失性)했다”라며 한탄했다. 도둑인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쥐와 손을 잡고 있으니 능히 그럴 만하다. 묘서동처(猫鼠同處)의 유래다.

오늘날 쥐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위법, 탈법과 불공정 등을 서슴치 않는 범죄자를, 고양이는 범죄자를 처벌, 감시, 감독하거나 공정하게 벌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검경, 법관, 등을 비유한다. 국정을 운영하고 책

임지는 권력 집단체도 물론 고양이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야 정치권의 분열과 거듭된 특검,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가 된지 오래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묘서동처 격이라면, 한 마디로 막 나가는 이판사판(理判事判)의 난장판의 나라가 되었다.

다음은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이다.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렵고 위험한 처지를 겪어봐야 인간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인생은 난관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 세상은 염량세태(炎凉世態)라서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지만, 몰락할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歲寒圖)를 보면 눈어 자한(子罕)관 제9장에 있는 “세한연후(歲寒然後), 지송백지후조야(知松柏之後彫也)”라는 글이 쓰여 있다. 날씨가 추워진 후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뒤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는 뜻으로, 위난의 때에 가서야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집안이 가난할 때라야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라야 충신을 알아볼 수 있다.

지금 아픈 것은 아릅다워지기 위함이다. 아릅다운 종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려면 종(鐘)이 더 아파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아플 때 우는 것은 상류이고, 아플 때 참는 것은 이유이고, 아픔을 즐기는 것이 일류 인생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여 본다.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서로가 하나 되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하루속히 우리나라도 안정되고 우리 안동 권문들도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항상 남과 이웃을 돕고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 권순공의 온고지신溫故知新

『안나 카레니나』와 ‘선(善)의 율법’



권순공(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안나 카레니나 법칙(Anna Karenina Principle)’이 있다. 어떤 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무수한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데, 이를 일러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고 한다. 그만큼 세상에서 실패는 쉬워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이는 레프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1828~1910)의 최고 걸작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불행한 이유는 많지만 행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래서일까? 톨스토이는 세계문학사 최고의 소설이라는 이 작품에서 세 가정의 사연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 세 가정의 이야기

우선 첫 번째는 안나 카레니나의 오빠인 스티바와 돌리 부부의 가정이다. 바람둥이 공작인 스티바가 집안의 가정교사와 바람이 나서 아내인 돌리가 집을 빠져 나가려 하자 여동생인 안나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오고 결국은 다섯이나 되는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돌리는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다. 문제가 있지만 가정을 유지하는, 말하자면 행복한 가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행한 가정도 아닌, 특별하게 두드러지지 않은 평범한(?) 가정인 셈이다.

두 번째는 불행한 가정의 예로 제시된 여주인공 안나의 가정이다. 30살의 안나는 고위관료인 카레닌의 아내로 8살의 아들을 둔 10년차 주부다. 그런데 남편과는 무려 20살이나 나이 차가 나고 서로 애정이 부족해 그저 의무감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안나가 오빠네 집을 오기 위해 모스크바 역에서 기차를 내리다, 미남인 청년 장교 브론스키 백작을 만나 첫눈에 반한다.그리고 무도회에서 본격적으로 서로를 탐색한다. 브론스키 역시 거부할 수 없는 안나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안나를 따라 페테르부르크행 기차에 몸을 싣는다. 안나가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지난 밤의 뜨거운 열정에서 벗어나 “다행히 내일 이면 세료자(아들)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남편)를 보겠구나. 그리고 난 예전처럼 모범적이고 습관적인 생활을 하게 되겠지.”하고 안도했지만, 브론스키가 나타나 결의에 찬 사랑고백을 함으로써 안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

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회를 이어가고 서로에게 빠진다. 결국 안나는 임신을 하고 경마대회에서 낙마하는 브론스키를 보고 과도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둘의 관계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남편도 이를 알게 되고, 안나는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남편은 아들의 양육권은 거부하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이들은 이탈리아로 떠나 거처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한”시절을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브론스키에게 있었다. 안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브론스키에게 집착했는데 동거가 진행될수록 브론스키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 게다가 브론스키 집에서는 소로키나 공작 영애와 브론스키를 맺어주려고 애쓰고 있었다. 안나는 추문이 무성한 모스크바의 사교계를 떠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로 가서 이혼 소식을 기다리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브론스키는 어머니를 만나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이들은 결국 대대적인 부부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안나는 브론스키의 행동이 사람이 완전히 식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결국 자살을 택해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진다. 톨스토이는 작품의 제사(題詞)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로마서 12:19)고 했지만 안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애인과 거짓과 추문으로 오염된 러시아 귀족사회에 대해 스스로 복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안나는 죽음의 순간에도 강렬한 빛으로 타올랐다. 해서 D.H.로렌스는 불륜과 속임수와 거짓으로 얼룩진 러시아의 귀족사회 혹은 사교계가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다는 이유로 안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았다고 해석한다. 이로써 안나는 사랑을 지킨 순교자로 등극한 셈이다.

|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부분의 영화는 안나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작품에서 안나의 존재가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 바로 레빈이다. 그만큼 레빈의 존재가 중요한데, 실상 작품에 등장하는 레빈은 톨스토이의 분신이다. 톨스토이의 모든 작품 가운데 작가를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바로 레빈이다. 레프 톨스토이의 레프(Lev)에 어미를 붙여 레빈(Levin)이 된 것이다. 못생긴 외모도 비슷했고 나이도 서른이 넘어 톨스토이가 결혼할 때와 비슷하다고 한다. 더욱이 사상이 톨스토이와 닮았다. 그러기에 레빈의 캐릭터에는 톨스토이의 생각과 행동이 상당수 육화돼 있다.

레빈은 자신이 좋아했던 키�티를 브론스키에게 빼기고(물론 브론스키는 안나에 빠져 키�티를 거둬들 보지도 않았지만) 도시를 떠나 시골 농장으로 돌아와 농민들과 같이 일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마침 상심



한 키티가 레빈이 머무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영지로 오게 되면서 두 사람의 애정이 다시 이어져 마침내 결혼에 이르게 된다. 이런 레빈과 키티의 사랑과 결혼이 안나-브론스키와 대비되어 또 다른 이야기로 교직(交織)되면서 작품을 형성한다. 이 가정이 말하자면 세 번째 경우로 ‘행복한 가정’의 예인 셈이다. 시골로 돌아온 레빈은 농사일에 열심이면서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레빈은 농사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확실히 알아, 비록 철학적 전망은 분명하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일꾼 표도르와 일을 하다가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영혼을 위해,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우친다.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의 끝에 드디어 레빈은 범신론적 ‘선(善)의 율법’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레빈이 깨달은 것은 ‘선의 율법’, 곧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분명하게 작동함으로써 삶이 의미 있어 진다고 한다. 결국 〈안나 카레니나〉는 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에게 ‘선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가을 정취 속 조상 참배와 화합의 장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 단양 팔경 관광 행사 가져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회장 권봉철)는 지난 10월 24일(목요일) 종친회원 34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안동권씨 추밀공파 문충공 종중 권오협 회장의 안내를 받아 양촌 권근 삼대묘소를 참배한 후 양촌 권근 삼대 묘소와 신도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회원들은 조상의 유덕을 기리며 경건히 참배를 마친 뒤 권오협 회장의 환송을 받으며 다음 행선지인 단양으로 출발하여 맛집을 찾아 정성스런 오찬을 함께 하며 종친간의 우의를 다졌다. 이어 장화나루 휴게소에 도착 유람선 관광을 하며 단양 팔경의 절경과 빨강계 물들어 가는 팔경의 단풍을 감상하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귀가길에는 교통 혼잡도 있었지만 버스 안에서 회원간의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우의를 다지고 회원 모두가 조상님의 참배도 뜻깊고 관광도 즐거웠다면 흐뭇한 소감을 전



했다.

권봉철 회장은 조상을 기리고 종친간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앞으로 매년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발전되고 화합하는 종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완주종친회 권영춘 총무이사

서울지역종친회 가을 단풍놀이

회원 여러분!

11월 소요산은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걷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특히 옛 신라의 명승 원효대사와 그 시대 최고 미녀인 요석공주와의 사랑 이야기가 서려 있는 자재암이 자리하고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가을 단풍놀이에 종친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일 시 : 2025년 11월 9일, 일요일 11시
- ♣ 장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 ♣ 교 통 : 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 광장

♣연락처: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5년 1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55차 정기산행 및 원정산행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55차 정기산행 및 원정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5년 11월 16일(일)
- ♣ 집합장소 : 1차 집결지 08:00 양재역 10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2차 08:30분 도봉산역 1번 출구 (시간 엄수)
- ♣ 산 행 지 :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길
- ♣ 준 비 물 :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정찬: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010-2240-4242

2025년 1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